

전문대학 기초학습능력 향상 방안: D 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Improvement of basic Academic Skills for Junior College Students : Based on a Case Study of D College

최길성*, 이승희**

동아방송예술대학 방송통신과*, 동아방송예술대학 공통기초학부**

Kil-Sung Choi(kschoi@dima.ac.kr)*, Seung-Hee Lee(seunglee@dima.ac.kr)**

요약

대학생 기초학습능력 미흡은 대학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전문대학이 안고 있는 주요 이슈 중의 하나이다. 그동안 기초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많은 대학에서 노력해 왔으나 해결책이나 개선방안이 뚜렷하지 못한 실정이다. 본 논문은 기초학습능력을 개선하려는 선행연구들이 시도한 노력의 연장선상에서 관련 문헌들을 고찰하고, 국내 전문대학의 기초학습능력 지원 및 운영사례를 벤치마킹하였다. 또한, D 대학을 대표사례로 선정하고 기초학습능력 수준에 대한 교수들의 인식 및 학생의 자기진단, FGI(Focus Group Interview) 등을 실시하여 기초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선행연구들과 마찬가지로 D 대학의 경우에도 기초학습능력(언어영역)에 대한 교수들의 기대 및 현재 수준 간 차이가 있었으며, 학생들의 사전 자기진단 역시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교수 기대수준 3.13, 교수 현재수준 2.14, 학생 자기진단 2.37). 본 연구수행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과 시사점을 토대로, 역량기반 교육과정으로의 개편(전공교과와 기초핵심역량과의 연계, 기초핵심역량 습득을 위한 교수법 적용, 기초학습역량 교과목 운영), 기초학습 미흡 학생 지도 개선(언어능력 향상을 위한 교수-학습법 적용, 수준별 교수-학습 자료 개발, 자기주도적 학습법 전파, 전공동아리 활성화) 및 기초학습능력 진단·평가 시스템 구축(타당도 높은 진단도구 개발 및 적용, 긍정적 진단문화 형성)을 개선방안으로 제안하였다.

■ 중심어 : | 기초학력 | 기초학습능력 | 전문대학 기초학습 |

Abstract

A lack of basic academic skills of junior college students has negatively impacted on the quality of vocational education and student dropout prevention, and yet it is true that there still are unclear alternatives or solutions to come up with that concern. As a way to find out the actual levels of basic academic skills of junior college students and educational efforts to improve these skills, the study investigated prior studies and benchmarked strengths and weaknesses of the related educational programs and supporting systems operated by ten junior colleges around the nation. Further, the study addressed emerging issues and challenges related to basic academic skills, based on the case study of D college. Major research methodologies included literature review, surveys for students and faculty members and focus-group interviews of faculty members in order to examine the states of students' basic academic skills in the area of language, in particular. Accordingly, the study proposed several suggestions with which educational practitioners could assist in supporting students to acquire improved basic academic skills(such as the development of a competence-based curriculum, implementation of reliable diagnosis tools and supporting educational systems for evaluating students' basic academic skills and upgrading of diverse teaching and learning resources and methods).

■ keyword : | Basic Academic Skill | Level of Basic Academic Skills for Junior College Students |

I. 서론

전문대학 학생들의 기초학습능력 저하 현상으로 직업교육과 취업의 질이 낮아지는 현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입학 정원에 비해 대학 진학 학생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4년제 대학 입학선호 및 대학 서열화로 선행학습이 부족하거나 학업수행능력이 저조한 학생들이 전문대학에 입학하는 경우가 많아 상황은 악화되고 있다[1-4].

향후 2014년까지는 고교졸업자가 대학입학 정원보다 늘어나지만, 2015년부터는 고교졸업자수가 줄어들어 2010년 현재의 65% 수준에 이르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추세에 따르면, 2020년에는 2천명 정원 기준 약 56개의 전문대학들이 폐교되고 전문대학 입학생의 학력수준이 더 낮아질 것으로 예측된다[5].

그동안 전문대학은 전문직업인 양성을 통해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4년제 대학과 비교하여 차별화된 직업교육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하지 못한 많은 전문대학들은 교육경쟁력 약화로 존립이 위태로울 수 있다.

더욱이 기초학습능력 저하로 학생들이 대학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학업포기 또는 중도탈락하고 있어 전문대학의 고민은 커질 수 밖에 없다. 일부 전문대학들은 입학경쟁력 확보를 위해 유명학과 설치, 성인학습자 및 위탁생 유인, 4년제 대학 편입학 자원 확보 등 다양한 정책으로 위기를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6], 이는 한시적인 방안으로 전문대학이 4년제 대학의 하위 교육기관임을 자초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한다.

또한, 직업교육이 2·3년이라는 단기간에 걸쳐 고난이도의 기능이나 스킬에 집중하는 교육과정으로 운영될 경우, 직업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초학습능력, 직업소양능력, 인성교육 등이 소홀히 다루어질 수 있다.

전문대학의 정체성과 교육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4년제 대학과 차별화된 직업교육을 통해 기업과 현장이 요구하는 인재를 배출해야 한다. 따라서 학생들이 장래 직업생활에 필요한 실천적 역량을 갖추어 줄 수 있도록 전문대학 직업교육의 변화가 절실하다[7-10].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단순히 국어, 수

학능력을 높이기 위한 협의의 기초학습능력의 관점에서 접근하기 보다는 전문대학 교육경쟁력 확보라는 전제하에 학생들의 기초학습능력에 관한 이슈를 다루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범위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전문대학에서의 기초학습능력개념을 고찰하였다. 아울러 D 대학을 대표사례로 선정하여 교수의 관점에서 학생들의 기초학습능력 기대 및 현재수준을 파악하고 이를 학생의 자기진단결과와 비교분석하였다. 나아가 기초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여러 전문대학의 운영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교수를 대상으로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하여 전문대학 학생들의 기초학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장기적, 실천적 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II. 전문대학 기초학습능력 실태

1. 전문대학 관점에서 본 기초학습능력 개념

일반적으로 기초학습은 중등교육과정에서 습득해야 할 능력으로 국어, 수학과 같은 교과목과 관련된 말하고 듣고 쓰고 읽는 능력 및 수리능력을 일컫는다[11]. 그러나 본 연구가 전문대학 학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전문대학의 상황적 맥락을 고려하여 직업교육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4]에 따르면, 기초학습능력은 “취업을 위해 필요한 전문교과를 학습할 수 있는 최소 능력”으로 정의될 수 있다(p.33). 그러나 학과와 전공에 따라 요구되는 교과목 내용과 수준에 차이가 있으므로, 좀 더 광의의 개념에서 “급변하는 산업세계에서 직업인으로서 자신을 개발하고 성장하기 위해 요구되는 기초능력”으로 재개념화하고 있다(p.33).

이들의 개념은 기초학습능력과 직업기초능력을 포괄적으로 포함한다. ‘기초’라는 용어는 낮고 저급한 수준이라는 의미보다는 기본적인이고 공통적이라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기초학습능력, 혹은 직업기초능력이 모든 직종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능력으로 규정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입장과

맥을 같이 한다[4]. 다른 선행연구[12]의 경우 직업기초능력 하위영역 중에서 기초학습능력을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정보능력 등으로 세분화하기도 한다.

결국, 전문대학교육이 상급학교 진학보다는 진로와 취업을 목표로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초학습능력은 '취업과 진로를 위한 기본적인 능력으로 전문대학 교육 과정을 이수하는데 필요한 지식, 스킬 및 태도'로 정의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문대학 학생들이 학업수행능력 뿐 아니라 직업생활에 필요한 핵심역량으로 기초학습능력을 개념화한다.

2. 전문대학 기초학습능력 관련 선행연구

전문대학 학생들의 기초학습능력을 측정된 국내연구 [2]에 의하면 국어, 영어, 수학의 최저 통과점수가 각각 50.39, 46.30, 48.10인데 비해, 해당 점수를 통과한 학생들은 65.7%, 48.7%, 43.1%인 것으로 나타나 상당수의 학생들이 기준미달로 보고된 바 있다.

전문대학 학생들의 기초학습능력 관련 대표연구에 따르면, 언어영역에 대한 교수들의 기대수준은 4점 만점에 평균 2.81점(백분위 점수 70.3)으로 나타나 있다 [13]. 조사결과 교수의 기대수준이 그리 높지 않은 것은 기초학습이 대학학업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능력이라는 인식과 전문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일반적 수준을 감안하여 응답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표 1. 언어영역 수준에 대한 교수 인식[13, p.58]

구분	말하기	읽기	듣기	쓰기	문법	문학	평균 (백분위)
공학	2.79	2.61	2.83	2.78	2.60	2.48	2.68 (67.0)
간호 보건	2.99	3.03	2.78	2.86	2.80	2.60	2.84 (71.0)
자연 가정	3.46	3.48	3.33	3.29	3.28	3.25	3.35 (83.7)
인문 사회교육	3.02	3.01	2.79	2.89	2.85	2.69	2.88 (71.9)
예체능	3.17	3.12	2.94	3.00	2.93	3.01	3.03 (75.7)
전체	2.94	2.73	2.96	2.86	2.76	2.62	2.81 (70.3)

연구결과에 따르면, 전문대학 교수들은 언어영역 하위요소 중 문학이해나 읽기보다는 말하기, 쓰기, 듣기능력의 필요성에 더 비중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교수가 인식하는 계열별 언어능력 기대수준의 경우, 자연가정계열, 예체능계열, 인문사회교육계열, 간호보건계열, 공학계열 순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는 계열에 따라 학업수행에 요구되는 언어능력수준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기초학습능력 향상 방안 역시 전공별로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동일 연구에서 전문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언어영역 자기진단 결과, 4점 만점에 2.75점(백분위 점수 68.8)으로 나타나, 교수의 기대수준인 2.81점(백분위 점수 70.3)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13].

이를 언어영역 하위능력별로 재구성해 보면, 교수들의 기대수준과 학생들의 자기진단결과 역시 차이가 있음을 재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교수들의 기대수준은 사실적 사고 72.5, 사실적 이해 71.5, 논리적 사고 71, 추리상상적 사고 69, 비판적 사고 67 순인데 비해(백분위 환산점수), 학생들은 추리상상적 사고 70.6, 사실적 사고 69, 비판적 사고 68.5, 사실적 이해 67.6, 논리적 사고 67.5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13].

3. 기초학습능력 진단 관련 D 대학 사례

본 연구는 기초학습능력 향상방안 모색을 위해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방향으로 조사를 수행하였다. 첫째, 관련 문헌을 검토하였으며, 전문대학 학생들의 기초학습능력(언어영역) 수준규명을 위해 D 대학을 대표사례로 선정하였다. D 대학에 재직 중인 교수 30명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언어영역에 대한 기대 및 현재수준을 조사하였다. 기초학습능력 중 언어영역은 학생들의 자기표현과 사고력과 연관된 기본능력이다. 특히,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능력은 능동적이고 원만한 사회생활에 필요한 요건임을 고려, 언어를 본 연구의 주요조사영역으로 제한하였다.

조사결과, 학생들의 언어영역에 대한 교수의 기대 및 현재수준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기대수준 3.13, 현재수준 2.14, 4점 만점 기준).

표 2. D 대학 언어영역에 대한 교수인식[14, p.25]

영역별	교수의 기대수준		교수의 현재수준	
	평균(편차)	백분위	평균(편차)	백분위
사실적 이해	3.18(.40)	79.5	2.11(.54)	52.8
추리 상상력	2.98(.37)	74.6	2.14(.54)	53.7
논리적 사고	3.18(.43)	79.7	2.08(.54)	52.2
비판적 사고	3.15(.48)	78.6	2.11(.54)	52.9
사실적 사고	3.19(.36)	79.7	2.27(.54)	56.9
전체	3.13(.40)	78.4	2.14(.54)	53.7

특히,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13]와의 비교를 위해 동일한 기초학습영역(언어)에 대해 동일한 진단도구를 적용하였다. 조사결과, D 대학 교수들의 기대수준은 선행연구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교수들은 자신들의 기대수준에 비해 학생들의 현재수준이 미흡하다고 인식하고 있어 기대에 못미치는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수들의 교육적 고충이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둘째, 기초학습능력에 대한 교수들의 인식 이외에 D 대학 학생들의 자기진단을 실시,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학생 166명을 대상으로 사전진단을 실시하고 8주 동안 기초학습능력(언어) 향상을 위한 비정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 후 사후진단을 실시하여 향상정도를 살펴보고 있다.

표 3. 언어영역 수준에 대한 학생 자기진단[15]

하위 영역별	사전 평균	사후 평균	차이	향상율 (%)
사실적 이해	2.31	3.16	0.84	35.9
추리 상상력	2.51	3.29	0.79	31.4
논리적 사고	2.51	3.29	0.86	37.3
비판적 사고	2.36	3.24	0.87	36.9
사실적 사고	2.39	3.26	0.87	36.4
계	2.37	3.22	0.84	35.5

조사결과, 전체 응답자의 사후점수는 평균 4점 만점에 3.22점으로, 사전평가 대비 35%이상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결과는 교수들의 기대수준에 근접하고 있으며, 특히 논리적 이해, 비판적 사고, 사실적 사고 순

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GPA 평균이하인 학생의 경우 3.43(백분위 환산점수 85.75점)로 40%이상 향상되었으며, 사실적 사고와 사실적 이해 영역에 대한 향상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선행연구[13]에서 실시한 전문대학 학생 자기진단 결과가 2.81점인데 비해, D 대학의 사후진단결과는 3.22점으로 백분위 환산점수로 약 10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D 대학의 경우 인문계 고등학교 출신 학생의 비중이 비교적 높은 등 입학경로 차이에 영향을 받거나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의 높은 학습열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III. 현행 기초학습능력 노력의 이슈와 가능성

본 연구는 D 대학의 기초학습능력 수준 규명 조사와 더불어 전국 전문대학(수도권 5개 대학, 지방 5개 대학)을 대상으로 기초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사례를 벤치마킹하였다. 또한, 2차례에 걸쳐 D 대학 소속 교수를 대상으로 한 FGI를 실시하여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연구수행을 통해 도출된 이슈들과 해결을 위한 가능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D 대학을 포함한 많은 대학들은 기초학습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교육프로그램 혹은 특강을 실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특강들은 일회성 또는 단발성 형태로 진행되고 있었다. 특히, 학력 미달 학생들이 갖는 열등감 등 여러 이유로 보충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어려워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이 비정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운영 및 교육적 성과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초학습능력을 향상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정규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수준별로 교과목을 개설하거나 선수과목으로 배정하여 이를 학점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둘째, 그동안 여러 학자들에 의해 기초학습능력 진단 혹은 평가 관련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진단도구들이 대학의 특정 목적이나 연구자의 관심에서 개발된 것으로 타 대학 학생들의 기초학습능력

을 객관적으로 진단, 처방할 수 있는 기준이나 평가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현재 사용 중인 기초학습능력 진단도구들을 검토하여 모든 전문대학에 적용 가능한 범용적 도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공별 특성에 따라 기초학습능력 수준을 규명하고 보다 높은 신뢰도와 타당도가 확보된 문항 혹은 도구를 사용하는 등 기초학습능력 제고를 위한 보다 과학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셋째, 기초학습능력 부진 학생들은 학습태도가 소극적이고 자신감이 부족하며 진로와 학습에 대한 성취목표가 약하다. 또한 대인관계 및 사회성이 미흡하므로 학생들이 대학학업에 열의를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하는 지원 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나아가 교수의 열의와 성의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기초학습 향상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성과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교수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독일이나 미국 등 해외 교육기관에서 기초학습부진 학생이 발달교육이나 보충교육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입학생 오리엔테이션이나 학생지도활동을 통해 기초학습교육의 당위성을 인식시키는 노력이 요구된다.

VI. 제언: 기초학습능력 지원을 위한 방안

그동안 수행된 선행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전문대학 학생들의 기초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대학차원에서 고려할 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핵심역량 기반 교육과정으로의 개편, 기초학습 부진 학생 지도 개선, 기초학습능력 진단·평가 시스템 구축으로 세분화하여 접근하도록 한다.

1. 역량기반 교육과정으로의 개편

많은 대학의 교육과정들은 대부분 DACOM 기법을 사용하여 설계되어 있다. 그러나 여러 선행연구들 [16][17][3][18]과 최근의 대학 및 기업교육 동향을 검토해 볼 때, 전문대학 교육과정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DACOM 기법은 전공분야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능과 스킬을 중심으로 교육내용을 도출하기 때문에 직업생활에서 요구되는 인성이나 성격 등 내면적인 가치관이나 인문학적 소양이 교육과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인문학적 내용은 대부분 교양교과목으로 개설되는 것이 일반적이라 직업인으로서의 소양을 쌓는데 주요한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에게 졸업을 위한 필수 학점 정도로만 인식되고 있으며 교양과목 역시 대부분 외래교수가 담당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지식과 스킬 중심의 전달식 교육과정에서는 사회적응력과 대인관계, 직업인의 가치관과 태도, 창의적 사고 및 문제해결력 등 현실세계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이 반영되기 어렵다.

반면에, 역량기반 교육과정에 대한 기존 연구들 [6][7][19][20][10]에 따르면, 직무에 대한 핵심역량 규명을 통해 전문인력들이 갖추어야 할 관련 지식, 스킬 뿐만 아니라 가치관과 태도가 무엇인지 파악하여 이를 교육과정에 반영시킬 수 있으므로 기초학습능력 향상을 총체적으로 도모하는데 유용하다[1]. 이러한 접근은 기초학습능력을 단순히 국어나 영어와 같은 인지적 범주를 넘어 진로나 취업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능력으로 정의하는 본 연구의 취지와 부합된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급변하는 현대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지식과 스킬의 습득을 넘어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대인관계능력, 자기관리능력 등 고차원적이고 포괄적인 능력이 요구된다. 핵심역량기반 교육과정은 신속한 적응력과 실천적 전문성을 중요시하는 전문대학의 교육적 특수성에 잘 부합된다[10].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교육과정 개편은 학습내용이 분절된 기존의 교육과정에 변화를 주어 직업사회의 니즈에 부합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기존의 교과내용을 배제하거나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1 전공교과와 기초핵심역량과의 연계

기존 전공교과목 내용 및 교육목표에 문제해결능력이나 의사소통능력 배양을 도모할 수 있는 내용을 반영한다. 교육과정의 대대적인 개편 없이 단위 역량들을

모듈화하여 교육과정에 반영할 수 있으므로 실용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예컨대, 수리교과외의 경우 학과에 따라 하위 요소별 내용범위와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하위 수리능력요소 중 전공별로 동일하게 적용가능한 기본내용은 별도의 교육과정으로 구성하고, 학과별로 내용수준과 범위가 다른 하위요소는 별도로 전공과 통합한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할 수 있다.

언어영역의 경우, 전공교과 수업시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고 탐구할 수 있도록 구성하되, 전공내용과 관련한 보고서 작성이나 토론 등으로 운영하여 관련 핵심역량을 배양하도록 유도한다.

그러나 이 경우, 교수가 핵심역량에 대해 충분한 이해와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관련 교수-학습법에 대한 선행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교수의 적극적인 교육의지가 없거나 열성적이지 못할 경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1.2 기초핵심역량 습득을 위한 교수법 적용

이 방법은 전공교과목 수업내용이 핵심역량을 배양시키는데 적절할 경우 적용할 수 있다. 예컨대, 문제해결능력의 경우 전공내용 학습을 위해 실무 프로젝트 혹은 기획 실습 기회를 수업 설계하는 것이다. 이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전공교과 담당교수와 교육공학 전문가간에 교수-학습법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요구된다.

1.3 기초핵심역량 배양을 위한 교과목 운영

별도의 독립된 교과목으로 기초핵심역량을 개발시키는 방법이다. 예컨대, 공통 교양교과목 혹은 공통전공교과목으로 반영, 개설하는 방법이 있으나, 이 방법은 교과목간 연계성이 부족하여 학습효과가 떨어질 우려가 있다.

반면, 진로 및 직업관련 전담교수가 있을 경우 효과적이다. 독립적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하나의 교과목에 각각의 핵심역량 배양을 목표로 하는 방법과 2~3개의 핵심역량을 묶는 방법, 또는 기초학습능력 전체 핵심역량들을 하나의 교과목으로 개설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2. 기초학습 부진 학생 지도 개선

기초학습능력 미흡 학생은 선행학습의 결핍이나 여타 교육환경으로 인해 기초학습능력이 떨어지거나 수준미달인 학습자이다. 이들은 독서행동 부진, 주의집중력 약화, 성취동기부족, 부정적 자의의식, 지적 호기심 부족 등의 행동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 학생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은 자신감을 회복하고 성취감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정서적 안정과 긍정적 사고, 학습동기를 갖도록 유도한다.

2.1 언어능력 향상을 위한 교수-학습법 적용

기초학습능력의 저하는 선행교육에서 듣기 및 말하기 학습이 형식적으로 다루어지고 학생들이 학습에 수동적으로 참여하는데서 기인한다[13].

그러나 듣기와 말하기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 역할을 넘어 자기표현의 수단이자 능동적이고 원만한 사회생활에 필수적인 능력이다. 따라서 언어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의 듣기와 말하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협동학습과 프로젝트중심학습이 고려할 수 있다. 학생들은 협동학습과 프로젝트중심학습을 수행하면서 에세이, 소설, 신문기사, 인터넷 등에서 학습주제를 선정하거나 관련 정보를 수집한다. 쓰기의 경우, 지문 내용을 읽고 느낀 점이나 소견을 서술하고 작성된 내용을 소그룹에서 발표하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2.2 수준별 교수-학습 자료 개발

전문대학에 입학하는 학생의 전공 선택 시기를 살펴보면 고3시절이나 대학입시원서를 접수할 즈음에서야 자신의 전공을 선택하는 등 전공에 대한 고민이 충분치 않은 경향이 있다[11]. 이 경우, 학생들은 전공분야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적성이나 능력에 대한 판단이 부족하며 학습동기가 저조하다. 또한, 전공학습에 대한 어려움과 교수진에 대한 불만이 53% 된다는 선행연구를 고려해 볼 때[11],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수준별 교수-학습법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다. 학생 수준에 맞는 맞춤형 과제 선정, 학습 출발점에 따른 학습목표 설정, 실무형 문제중심학습 등도 고려할 수 있다.

2.3 자기주도적 학습법 전파

학습동기 부여 및 자존감 고취는 대학 학업수행에 중요한 동인이다. 따라서 학습부진 학생들이 스스로를 능력있고 가치있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자기주도적 학습은 학생 스스로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하며 학습전략을 실행한 뒤 스스로 결과를 평가하고 점검하는 과정을 통해 유의미한 학습경험을 구성하는 방법이다. 기초학습 부진 학생들이 자기주도적 학습자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수와의 정기적 심리상담, 노트필기법, 시간관리법, 예복습방법 등 다양한 학습도우를 습득할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2.4 전공동아리 활성화

학습동기가 부족한 학생들은 많은 경우 학과나 전공에 대한 기대가 낮다. 이 경우 전공동아리 및 자기계발 모임에 가입하여 대학과 학업에 적응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전공동아리는 멘토링, 선·후배간 전공 지도, 지역 및 사회봉사 활동 참여 등 기초학습능력이 미흡한 학생들이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고 사회성을 고취시키는데 유용하다.

3. 기초학습능력 진단·평가 시스템 구축

본 연구에서 선행연구들을 고찰하고 여러 전문대학의 기초학습능력 지원사례를 조사한 결과, 여러 대학에서 기초학습능력 진단도구들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존의 진단도구들은 각 대학의 필요와 목적에 따라 별도로 개발된 것으로 모든 대학에서 범용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제한적일 수 있다. 따라서 객관적이고 신뢰도 높은 진단도구를 개발, 적용하고 긍정적인 진단문화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3.1 타당도 높은 진단도구 개발 및 적용

지금까지는 대학에서 자체 개발한 진단문항을 한국표준협회로부터 인증 받아 활용하거나 기존연구에서 개발된 진단도구를 도입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기초학습능력을 진단한 대학들을 벤치마킹한 결과, 일부 도구들은 진단문항과 예시문항과의 상관성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같은 평가분야에 공신력있는 전문기관에서 개발한 진단문항을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는 타당성과 신뢰도를 확보하고 여러 대학에서 널리 도입, 적용하는데 용이할 것으로 판단된다.

3.2 긍정적 진단문화 형성

전문대학 운영사례 벤치마킹 결과에 의하면, 많은 전문대학들이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입생의 수준을 진단, 처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입학초기에 기초학습능력수준을 전면적으로 진단하여 진단결과에 따라 해결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사전 및 사후 진단의 향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전략 역시 학생 참여를 독려하는 방안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한편, 오프라인 진단을 적용하는 대학의 경우, 신입생 대학생활 실태조사와 같은 조사에 기초학습능력 진단문항과 대학생활 지도에 필요한 질문을 포함시키고 있다. 어떤 방법으로 실시하던지 간에 '대학생활 향상을 위한 검사' 혹은 '맞춤형 교육활동 프로그램' 등과 같은 순화된 용어를 사용하여 참여학생들이 스스로를 기초학습 부진이라는 열등의식을 갖지 않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

V. 결론 및 제언

그동안 전문대학교육협의회와 많은 전문대학들이 기초학습능력 향상 사례 발표, 관련 교재 개발 및 보급, 교수-학습 연구대회, 교육과정 개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해 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상에서 기초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문헌고찰 및 사례연구를 통해 전문대학에서의 기초학습능력의 개념을 재정의하였다.

둘째, 전문대학 기초학습능력을 제고하려는 여러 대

학들의 운영사례와 D 대학 사례를 통해 당면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안하였다.

셋째, 기초학습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역량기반 교육과정으로의 개편, 기초학습 부진 학생 지도 개선, 기초학습능력 진단·평가 시스템 구축 등 향후 개선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하였다.

그동안 전문대학 교육과정 개선과 기초학습능력 제고에 관한 선행연구들이 수행되었으나 양적, 질적으로 충분치 않고 실제 사례가 많지 않는 상태에서 수행되어 본 연구의 결과에 제한점이 있을 수 있음을 밝힌다. 본 연구를 토대로, 향후 기초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심층적인 현장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참 고 문 헌

[1] 김재문, “전문대학의 기초학습능력 실태와 개선 방안”, 세무회계연구, 제20권, 제1호, pp.51-78, 2007.

[2] 민선향, “전문대학생의 기초직업능력 강화에 대한 탐색적 연구”, 연세교육연구, 제17권, 제1호, pp.73-97, 2004.

[3] 이종성, 정향진, “전문대학생의 기초학습능력 증진 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보고서, 2003.

[4] 조은상, 강종훈, “전문대학 학습기초능력 평가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보고서, 2000.

[5] 이용균, “전문대학의 미래 예측 및 구조조정 방향에 관한 델파이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6] 박민정, “대학교육의 기능과 역할변화에 따른 대안적 교육과정 담론: 역량기반 교육과정의 교육적 함의”, 교육과정연구, 제26권, 제4호, pp.173-197, 2008.

[7] 소경희, “역량기반 교육의 교육과정사적 기반 및 자유교육적 성격 탐색”, 교육과정연구, 제27권, 제1호, pp.1-20, 2009.

[8] 윤찬근, “전문대학교육의 경쟁력 향상 방안”,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자료집(전문대학교육의 경쟁력 제고 및 국제화 방안), pp.17-51, 2010.

[9] 정태화, 진종호, 홍광표, 이길순, 이병욱, “직업교육 혁신 2020”,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보고서, 2009.

[10] 최길성, “역량기반의 전문대학 교육과정 개선방안”,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0권, 제10호, pp.464-478, 2010.

[11] 김주성, “교수·학습법 개발 및 적용”,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교수학습과 실제과정, 2010.

[12] 나승일, 정철영, 김주섭, 구자길, 김강호, 장현진, “기초직업능력표준 제도화 방안”,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제40권, 제2호, pp.161-188, 2008.

[13] 이광용, 전명화, 신경숙, “전문대학생 기초학습능력 진단도구 적용 및 목표기준 개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연구보고서, 2008.

[14] 최길성, 이승희, “DIMA 학생의 기초학습능력제고를 위한 중장기 방안”, 동아방송예술대학 연구보고서, 2011.

[15] 최길성, 이승희, “기초학습능력 지원 프로그램 운영결과보고서”, 동아방송예술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연구보고서, 2011.

[16] 강경중, 김종우, “전문대학 교육과정 모형개발과 운영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보고서, 2001.

[17] 강경중, 이진남, “직업기초능력 함양을 위한 전문대학 교양 교육과정 개발방안”, 농업교육연구, 제22권, 제1호, pp.79-113, 2003.

[18] 최욱, “기업교육 체계수립 개발 사례: DACUM과 CBC의 비교”, 교육공학연구, 제18권, 2호, pp.91-121, 2002.

[19] 오현석, “역량중심 인적자원개발의 비판과 쟁점 분석”, 경영교육논총, 제47권, pp.191-213, 2007.

[20] 임언, 최동선, 박민정, “미래사회의 직업세계에서 요구하는 핵심 역량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서, 2008.

저 자 소 개

최 길 성(Kil-Sung Choi)

종신회원



- 1988년 2월 : 한밭대학교 전자계산학과(공학사)
- 1992년 2월 : 수원대학교 전자계산학과(이학석사)
- 1999년 2월 : 충북대학교 정보통신학과(공학박사)

▪ 1999년 3월 ~ 현재 : 동아방송예술대학 방송통신과 교수

<관심분야> : 교수-학습기법, 교육과정 개발방법, 방송통신기술, 3DTV, 멀티미디어 콘텐츠

이 승 희(Seung-Hee Lee)

정회원



- 1992년 2월 : 가톨릭대학교(구 성심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과(문학사)
- 1999년 8월: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공학전공(교육학석사)
- 2003년 2월 : 한양대학교 교육공학과(교육학박사)

▪ 2009년 3월 ~ 현재 : 동아방송예술대학 공통기초학부 교수

<관심분야> : 테크놀로지 기반 교수설계, 지식경영, HRD, 교수학습